

【모모타로선(키비선)을 지방도시 교통의 성공 모델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어제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JR 모모타로 선(키비 선)의 LRT 화에 관하여 오카야마, 소자 두 도시와 JR 니시니혼의 3자가 분할 분담과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LRT 화라고 하면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예상하는 LRT는 노면전차와 같은 외관의 저상차량이 도로를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구간과 철도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전용구간을 모두 달리는 것입니다.

LRT 화하여 역이나 홈의 규모는 작게 할 수 있고(노면 전차의 정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역의 설치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전차와 버스, 택시 증강장과 인접시킬 수 있어서 교통수단의 이용이 쉬워집니다.

또한 예를들면 정체 다발지역으로 유명한 비젠미카도의 서쪽(간사이 고등학교 앞) 등에서는 건널목을 없애고 차와 LRT 신호 관리를 같이 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역수나 편수를 늘려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연선이나 주변 지역의 마을 만들기가 촉진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미에서는 이미 활발히 도입되어 많은 효과를 얻은 LRT이지만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어, 2003년에 JR 니시니혼에서 LRT 구상이 발표된 뒤에도 좀처럼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4년에 겨우 3자가 이 사업의 유용성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도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한때는 단념할 가능성도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3자가 진지하게 검토를 진행해 최근 2, 3개월 사이에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LRT 화 사업은 이후 다음 단계(기본계획 수립)로 진행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LRT 화는 오카야마의 미래 도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3자 협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